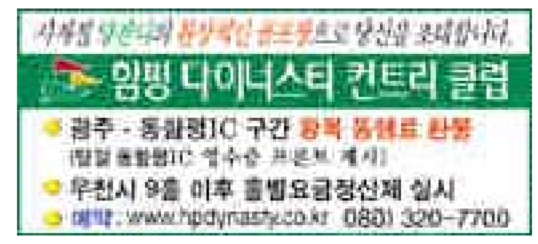


광주·전남 출신 태극 전사들 초반탈락 아쉬움

기대를 모았던 전남출신 선수들이 잇따라 패배해 팬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한국 배드민턴의 희망 이용대(화순실고 졸업)-정재성조가 남자 복식 첫 판에서 탈락했다.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 후보이자 세계랭킹 3위의 이용대-정재성 조는 12일 베이징 공과대학 체육관에서 벌어진 남자복식 16강에서 랭킹 7위인 덴마크의 파스케-라스무센 조에 0-2(16-21 19-21)로 패했다.

남자 체조 단체전 첫 메달의 꿈도 무산됐다. 기계체조 대표팀은 12일 단체전 결선에서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6종목 합계 274.375점을 획득, 4위 독일(274.600점)에 이어 5위에 머물렀다.

종목당 3명씩 출전해 6종목 점수를 합산하는 결선에서 영광 출신의 김대은과 김승일은 높은 스타트점수를 앞세워 동메달을 바라봤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개인종합 결선 대표로 나서게 된 김대은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14일부터 시작하는 개인 종목별 결선을 준비한다.

광주의 부진도 아쉽다.

첫 금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남여고 출신의 김찬미는 여자 사격 10m 공기소총 예선에서 396점을 기록하며 결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아네테 올림픽 사격 여자 트랩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동메달을 따냈던 이보나도 4년만의 재도전에서 예선 19위로 부진하며 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광주·전남의 부진 속에 양궁 주현정의 금메달은 그나마의 위안이다. 여자양궁단체전 6연패의 위업을 이룬 주현정은 고향 곡성과 모교 광주체고의 명예를 걸고 14일 양궁 개인전 금메달을 향해 출격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8 베이징올림픽이 계속된 12일 베이징사격관에서 열린 남자 50m 권총 결승에서 진종오의 권총이 타켓을 정조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발 8.2점 앗!…'금' 놓칠뻔

■ 진종오 '금' 명중 순간

北 김종수에 겨우 0.2점 앞서

기침 감기 되레 집중력 키워

사격

진종오(29·KT)가 12일 2008 베이징 올림픽 사격 50m 권총에서 일궈낸 금메달은 숱한 고비를 극복한 의지의 승리였다. 1위를 달리다 결선 7번째 발에서 6.9점을 쏘며 은메달로 마감한 아테네올림픽의 아쉬움이 그에게 준 것은 어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불굴의 의지였던 것이다.

첫 위기는 경기 시작하자마자 찾아왔다. 심한 기침을 동반한 감기에 걸려 점퍼 차림으로 54번 사대에 선 그는 시작하자마자 내리 4발을 9점에 맞히더니 6발 째는 8점을 쐈다.

첫 시리즈 10발을 91점에 그친 진종오는 2번째 시리즈에 들어가기 앞서 사선 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정신을 가다듬었다. 결국 그는 관중석에서도 들릴만큼 힘겹게 기침을 하면서도 2,3번째 시리즈서 각각 94점으로 페이스를 올리더니 4,5번째 시리즈에서 각각 97점을 찍으며 선두권에 자리, 첫 위기를 멋지게 극복했다.

다들 '이제 됐다' 하던 순간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마지막 6번째 시리즈에서도 5발까지 10점 3번, 9점 2번을 쏘며 본선 1위를 굳히나 했던 그는 6번째 발에서 어이없이 7점을 쏴 뒤에서 지켜보던 김선일 코치의 탄식을 자아냈다. 심호흡을 하고 맨손으로 몇차례 조준 연습을 한 뒤 다시 총을 들어올렸지만 두번 연속 8점을 쏘며 계속 흔들렸다. 순식간에 중간 순위 7위로 밀린 그는 마지막 2발에서 또 실수를 하면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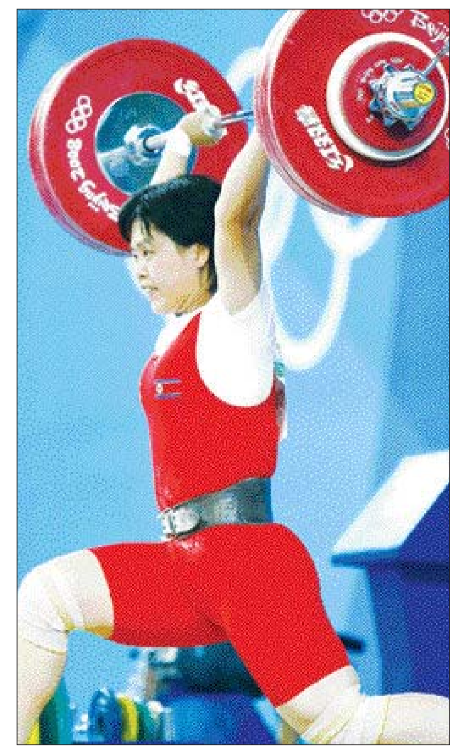
보다 못한 김 코치가 심판원을 통해 진종오를 불렀지만 진종오는 '알았다'는 눈짓만 보낸 뒤 곧바로 다시 총을 들었다. '또 4년을 기다려야 하나' 싶던 그때 그는 막판 두발을 10점과 9점에 맞히며 기어이 2위 그룹으로 결선에 올라섰다.

초조함과 허탈함이 교차되는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선수들은 격발 타이밍을 잡지 못한 채 자포자기하듯 경기를 마무리하지만 4년 전 아픔을 겪었던 그는 강철같은 배짱으로 두번째 위기를 극복했다.

세번째 위기는 결선 4번째 발에서 찾아왔다. 결선 첫 두발을 10.3, 10.5 점에 명중시키며 1위에 자리한 그는 4번째 발에서 8.5점을 쏴 3위로 밀렸다. 하지만 그는 다음 두 발에서 차분히 10.4점과 10.3점을 기록하며 다시 위기를 돌파했다.

9번째 발을 마친 뒤 2위에 1.9점차로 앞서 금메달 8부 능선을 넘은 듯 했던 그에게 최종 한 발에서 또 한번 위기가 왔다. 8.2점을 쏜 것이다. 2위를 달리던 탄종량이 10.2점만 쏘면 4년 전과 똑같은 좌절을 씹어야 할 상황이었고, 자기 할 일을 끝낸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도 없었다.

그러나 신은 4년의 와신상담 끝에 숱한 위기를 넘기며 이까지 온 진종오에게 행운이라는 마지막 선물을 했다. 탄종량이 쏜 마지막 탄환은 9.2점에 그쳤고, 곧이어 순위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자기 이름을 확인한 진종오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입으로 손을 가린 채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다. /연합뉴스



북한 박현숙 첫금 들었다

역도

북한 박현숙(23·사진)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역도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다.

박현숙은 12일 베이징항공항천대학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63kg급 경기에서 인상 106kg 용상 135kg을 들어 올려 합계 241kg을 기록하며 카자흐스탄 마야 마네자(합계 240kg)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북한 역도 선수 가운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박현숙이 처음이다. 박현숙은 또 이번 올림픽 역도에서 지난 11일 여자 58kg급 오종애가 동메달을 딴 데 이어 두번째로 메달을 딴 북한 선수가 됐다.

박현숙은 인상 2차 시기에서 106kg을 들어 올린 뒤 3차 시기에서 108kg을 시도했지만 바벨을 뒤로 떨궈 실패로 끝이 났다.

용상 1차 시기에서 다른 선수와 비교해 가장 무거운 135kg을 신청한 박현숙은 1, 2차 시기를 실패한 뒤 3차 시기에서 극적으로 135kg을 들어 우승을 확정했다.

한국의 김수경(23)도 같은 체급에 출전했지만 인상 98kg 용상 127kg을 들어 합계 225kg으로 6위에 머물러 입상권에는 들지 못했다.

중국의 왕신과 천루어린이 12일 베이징에서 벌어진 2008 베이징 올림픽 다이빙 여자 싱크로나이즈드 10m 플랫폼 경기에서 금메달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中 다이빙 금 싹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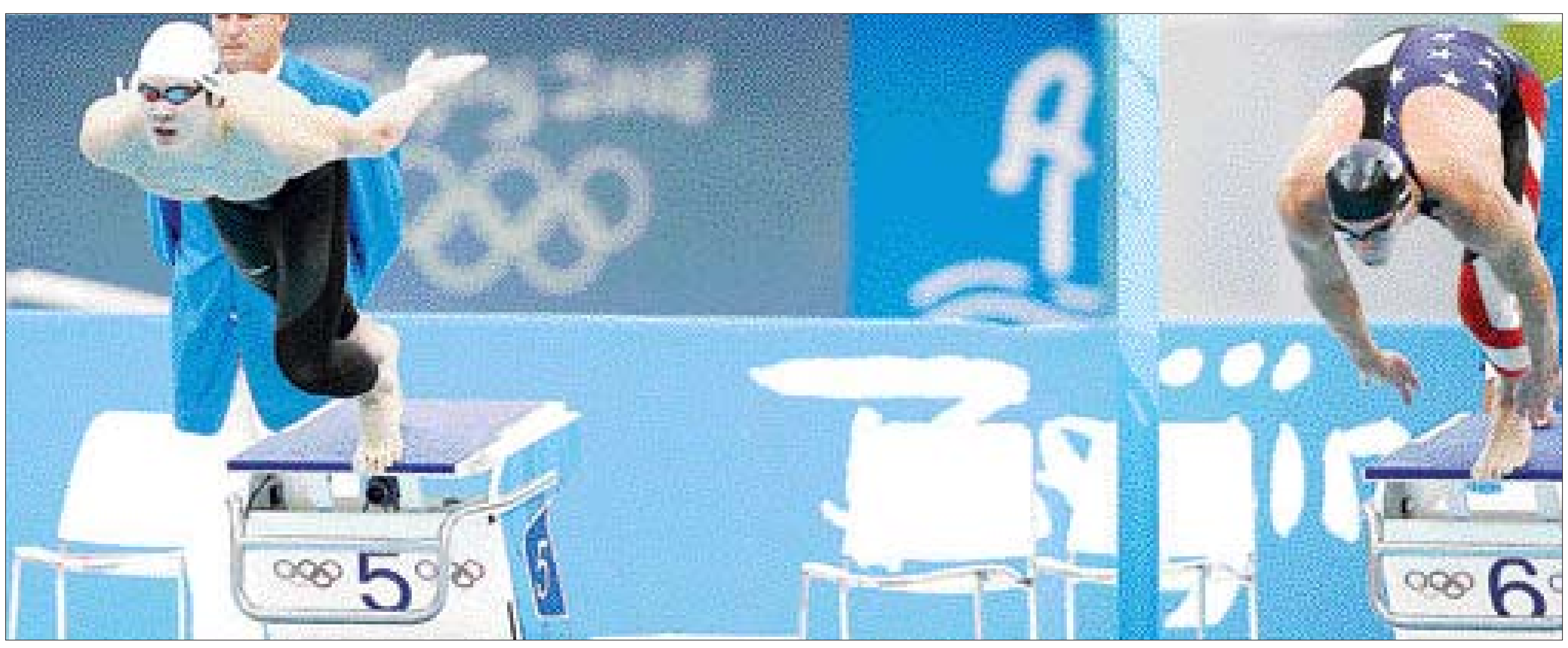
女 싱크로 10m 플랫폼 등 3개 우승

수영(다이빙)

세계 최강 중국 다이빙이 예상대로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있다.

왕신과 천러우린이 조를 이룬 중국 여자팀은 12일 낮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 다이빙풀에서 펼쳐진 여자 싱크로 10m 플랫폼에서 총점 363.54점을 받아 호주의 브리오니 콜-멜리사 우 조(335.16점)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10일 여자 싱크로 3m 싱크로보드에서 궈징징-우민샤 조가 이번 대회 다이빙 첫 금메달을 수확하고, 다음날 린웨-훠량 조가 남자 싱크로 10m 플랫폼에서 우승한 데 이어 중국은 이날까지 나온 금메달 3개를 모두 가져간 것이다.

앞으로 다이빙 금메달은 13일 남자 싱크로 3m 스프링보드, 17일 여자 3m 싱크로보드, 19일 남자 3m 싱크로보드, 21일 여자 10m 플랫폼, 23일 남자 10m 플랫폼까지 5개가 남았다.


12일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박태환이 펠프스(미국)와 함께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박태환은 이 경기에서 은메달을, 펠프스는 금메달을 땄다. /연합뉴스

박태환 亞 최초 자유형 200m 메달리스트

수영(경영)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은 12일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이 종목 최초로 시상대에 오르는 아시아인으로 기록됐다.

올림픽에서 자유형 200m는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다. 첫 금메달리스트는 호주의 프레데릭 레인이었으며 헝가리의 졸탄 할마이, 오스트리아의 카를 루베를이 2, 3위를 차지했다.

자유형 200m는 이후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빠졌다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다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68년 만에 재등장한 이 종목 우승은 호주의 마이크 웬덴이 차지했고, 은메달과 동메달은 모두 미국 선수가 가져갔다.

자유형 200m는 이후 정식종목에서 빠지지 않고 이번 올림픽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아시아인이 메달을 따낸 적은 한번도 없었다. 모두 미국이나 호주, 유럽 선수가 금, 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뉴질랜드의 대니언 로더가 금메달, 브라질의 구스타푸 부흐게스가 은메달을 차지한 것이 이변이라면 이변일 수 있다.

일본이 수영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1930년대 이 종목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었던 것이 아시아인 메달리스트가 전무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일본의 야마나카 쓰요시가 세계 기록을 보유한 적은 있다. 1960년 로마 대회 자유형 400m 은메달리스트인 야마나카는 1958년 2분03초00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뒤 이듬해 1월 호주의 존 콘라즈(2분02초20)에게 잠시 빼앗겼다가 그 해 7월 2분01초50으로 다시 신기록을 작성했다. 야마나카는 이후 3차례나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며 2분00초40까지 단축시킨 바 있다.

어찌됐든 이틀 전 자유형 400m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72년 만에 올림픽 남자 자유형 금메달을 획득한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는 최초의 아시아인 메달리스트가 됨으로써 베이징에서 새 역사를 또 작성했다.

펠프스 금메달 9개 올림픽 통산 '최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를 앓고 물 속에 머리를 담그기 무서워 배영을 먼저 배웠던 소년은 16년 뒤 세계 수영을 호령하는 황제로 변해 있었다.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3·미국) 얘기다.

펠프스는 12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한국의 박태환(19·단국대)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1분42초96으로 세계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들어 벌써 3관왕이다. 출전하는 종목마다 금메달이 아니면 목에 걸지 않았다. 순도도 높았다. 지난 10일 오전 개인혼영 400m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며 첫 우승을 차지했다. 다음날 오전 계영 400m 멤버로 출전해 두번째 금메달을 맛봤다. 역시 세계 기록이었다.

이어 이날까지 3개의 금메달을 모두 세계 기록으로 장식했다. 여기에 펠프스는 1896년부터 시작된 근대 올림픽 112년 역사를 새로 쓸 참이다.

4년 전 아테네 대회에서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펠프스는 통산 9개로 역대 통산 최다 금메달 보유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동안 옛 소련의 체조 선수인 라리사 라티니나, 핀란드의 육상 선수 파보 누르미, 미국의 수영 전설 마크 스피츠, 역시 미국의 육상 스타 칼 루이스 등 4명 만이 올림픽에서 9개의 금메달을 가져갔다.